"문예회관, 제도 밖 대안공간과 적극 공조 필요"

해비치페스티벌 네트워킹 전시공간 활성화 방안 모색

"지역 기반한 비전에 유사성 신진 작가·레지던시 기획 등 양측 협력 가능 콘텐츠 다수"

지역을 대표하는 공적 문화공간인 문화예술회관에서 제도 밖에 있는 대안공간을 적극 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서귀포시 표선면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 제주에서 열린 제12회 제주해비치아트페스티벌 교류협력 네트워킹에서 제기된 내용이다.

이번 전시 분야 교류협력 네트워킹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미술창작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 사업' 소개를 시작으로 '지역문화공간의 지역사회에 대한 역할과 효율적 운영방안', '지역문화공간의 전시 활성화를 위한 발전 방향'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 전시 공간과 전시 프로그램 제공자 사례 발표가 뒤따랐다. 그동안 문예회관 활성화 논의가 공연장을 위주로 진행되었다면 이날은 전시공간을 중심으로 지역과 밀착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회원기관 대부분이 전시실을 갖췄고 제주지역도 제주도문예회관, 서귀포예술의전당이 전시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날 이준희 건국대 겸임교수는 서상호 오픈스페이스배 대표가 대독한 발표문에서 "문화예술회관은 '정치'에 의해 탄생된 근대적 개념의 '제도화된 공간'으로 그 대척점에 '대안공간'이 존재하는데 '지역' 혹은 '지역 성'이라는 화두를 예술기획 프로젝트로 풀어내고 있는 대안공간의 역할은 지역의 문화예술회관이 추구하는 비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문화예술회관은 이들 대안공간의 활동을 적극 수용하려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12일 제주해비치아트페스티벌 행사장에 전국 문예회관 등 회원 기관에서 진행한 공연·전시 포스터가 전시되어 있다. 진선희기자

그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문화예술회관과 대안공간이 공조·협력할 수 있는 콘텐츠가 의외로 많다"며 지역 출신 신진작가를 위한 전시 기획, 지역 공동체를 위한 문화행사 기획, 레지던스를 위한 국내외 교류 기획, 지역 문화기획자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기획, 지역 작가 작업실을 엮는 네트워크 프로그램과 오픈스튜디오 기획 등을 꼽았다. 다만 이 교수는 "그렇다고 해서 전국의 시도가 유사한 문화지형을 만드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지역의 특수성과 차별성을 담보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슬기로운 전략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진선희기자

'흥부전' 비틀어 우리 사회 갑질 풍자

극단 가람 제작 '후궁박빈' 대한민국연극제 공연 이어 상주단체 설문대센터 무대

우리에게 익숙한 고전문학 '흥부전'을 모티프로 '전통 사극 블랙코미디' 연극이 만들어졌다. 극단 가람이 2019년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우수 레퍼토리로 선보이는 '후궁박빈'(한윤섭 작, 이상용 연출)이다.

이 작품은 제주 무대에서 한 차례 검증을 받았다. 제37회 대한민국연극제(6월 1~25일 서울) 제주 대표팀을 가려내는 예선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해 이달 15일 오후 4시와 7시30분 대학로 예술극장 대극장에서 경연이 예정되어 있다.

'후궁박빈'의 배경은 조선시대. 임금의 후궁들이 10년째 아이를 낳지 못하자 궁지에 몰린 이인문은 아들을 열다섯명이나 얻은 흥부 처를 이용해 위기를 벗어나려 한다. 흥부 처가 임금과 하룻밤을 보낸 뒤 아들이 태어나지만 남다른 생김새에 한바탕 소통이 벌어진다.

궁중의 권력 암투와 그 아래 억눌린 힘없는 서민들의 애환을 그려낸 작품으로 오늘날의 현실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가람 측은 "갑질과 권력, 불평등에 대한 공분의 온도가 점차 뜨거워져 가고 있는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정서에 대한 관찰이 무대화되었다"고 했다. 고가영 박세익 김금희 차선영 이승준 이동훈 등이 출연한다.

제주 공연 일정은 이달 28일 오후 4시, 29일 오후 3시와 7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입장료 무료. 문의 710-4242, 722-0794.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詩(시)로 읽는 4·3 (12)

떠오르는 말들-제주4·3, 제70주년에

이은봉

쌀, 쌀, 쌀, 만세, 만세, 만세소리, 소리들로 가득한 골목, 도로, 거리, 산간, 총소리, 총소리, 탕탕탕, 탕탕

아우성, 비명, 피, 피, 피.....군함, 바다 위, 함포사격, 폭탄 터지는 소리, 살 찢어지는 소리, 후다닥 도망치는 소리

동굴, 동굴 속에 숨어 사는 사람들, 강아지들 컹컹, 도야지들 꿀꿀.....질그릇, 짚그릇, 감자, 감자 먹는 사람들

동굴, 동굴 입구, 치솟는 연기, 일렬로 늘어서 있는 사람들, 총 든 군인들, 총 든 경찰들, 총 든 서북청년들

4·3하면 떠오르는 말은 무엇일까? 4·3은 한동안 '폭동' 취급을 받아왔다. 최근까지 그냥 '4·3사건'으로 부른다. 4·3은 아직 제 이름을 찾지 못했다. 왜 아직까지 정명(正名)을 찾지 못했을까? 4·3은 항쟁이다, 4·3은 민중항쟁이다, 4·3은 통일운동이다, 라고 부르자 한다. 4·3하면 떠오르는 이름은 김달삼(金達三)이다, 이덕구(李德九)이다. 아니 토벌대이다, 서북청년단이다. 아아, 4·3하면 떠오르는 말은 폭도였다. 제주 사람은 8할이 폭도였다. 4·3하면 떠오르는 말은 미국이다, 미군이다, 미군비행기이다. 아아, 미군이 총을 겨누었는가? 4·3하면 떠오르는 말은 쌀이다. 만세소리다. 도망치는 소리들로 가득한 골목이다. 도로이다. 거리이다. 산간이다. 아아, 죽임의 총소리이다. 탕탕탕, 탕탕. 그에 따르는 아우성이며 비명이다. 피, 군함, 바다 위, 함포사격이다. 폭탄 터지는 소리이다. 후다닥 산으로 오르는 소리이다. 4·3하면 떠오르는 말은 동굴이다. 아아, 동굴 속에 숨어 사는 사람들이다. 동굴 입구로 치솟는 연기이며 총 든 토벌대들이며 일렬로 늘어서 있는 사람들이다.

아름다움을 경험할 때 눈물이 나는 건, 그 너머에 아픔이 숨겨져 있는 언어가 숨어있기 때문이다. 제주의 땅 아래에는 70여년 동안 켜켜이 쌓인 엉킨 아픔이 있고 아픈 언어가 숨어있다. 4·3의 기억은 그렇게 날이 선 채 70년이라는 시간을 베어왔다. 1948년 당시 제주 인구의 9분의 1 수준인 2만5000~3만명이 4·3으로 희생됐다. 희생자의 33%가 어린이·노인·여성이었으며, 희생자의 86%가 토벌대에 의해 발생했다. 토벌대 전사자는 320명으로 집계됐다. 그렇지만 아직도 모르겠다. 4·3은 도대체 무엇인지 정말 모르겠다. <김관후 작가·칼럼니스트>

문화가 쪽지

퀄텟알랑 두번째 정기공연

제주 지역 젊은 연주자들로 구성된 현악4중주팀 퀄텟알랑의 두번째 정기연주회가 13일 오후 7시30분 제주대 아라뮤즈홀에서 열린다.

퀄텟알랑은 바이올린 곽정연 황용민, 비올라 김세연, 첼로 김진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하이든의 현악4중주 제64번 '종달새', 아름다운 멜로디를 현악 4중주곡으로 편곡한 드뷔시 모음곡, 스메타나의 현악4중주 제1번 '나의 삶으로부터' 등 고전을 시작으로 시대별 음악을 선곡해 들려준다.

제주도예가회 18회 정기전

제주도예가회 열여덟번째 회원전이 제주시 한경면 저지문화예술인마을 스페이스 예나르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다.

이달 16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정기전은 '섬 이야기'란 제목을 달았다. 허민자의 '섬 아이', 한홍곤의 '둔지오름' 등 바다를 건너야 하는 섬의 환경이 만들어내는 풍토에 빚진 작품들을 볼 수 있다. 중진에서 신진까지 제주 대표 도예가 20여명의 근작이 펼쳐지는 자리다. 문의 064)772-4280.

미술동호인 미감회 창립전

미술 비전공자들로 구성된 순수미술 동호인 모임인 제주 '미감회'(회장 이영수)가 이달 16일까지 성안미술관에서 창립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고광효 등 '7명의 시니어' 회원들이 참여해 누군가는 취미로, 누군가는 호기심으로 시작해 어느덧 창작과 성장의 기쁨을 알아가는 여정을 풀어놓고 있다. 정물이나 풍경화 등으로 5년 넘게 갈고 닦은 그림 실력을 만날 수 있다. 서양화가 송미지자씨가 지도를 맡았다.

하늘빛 수채화회 회원전

제주 하늘빛 수채화회 세번째 회원전이 이달 15일부터 20일까지 문예회관 3전시실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는 투명한 담백함, 붓놀림에 따라 드러나는 생동력 등 수채화의 매력에 빠진 20여명의 회원들이 열정으로 그려나간 작품들이 펼쳐진다. '내 고향 돌담…', '범섬이 보이는 가을 풍경', '수국의 향연' 등 정겨운 장면들을 그림에 담았다. 개막 행사는 첫날 오후 6시에 마련된다. 문의 064)710-7633.

화려한 꽃의 표정이 그려낸 우리네 삶

현인갤러리 김인화전 갤러리노리 빈센트전

제주 갤러리에 꽃이 활짝 피어났다. 현인갤러리의 김인화, 갤러리노리의 빈센트 맥킨도 개인전이다.

캐나다 태생 빈센트 맥킨도는 '꽃'을 주제로 땅에 뿌리를 내린 화려한 식물을 불러냈지만 기실 그것은 우리네 희로애락 삶의 이야기다. 전시는 이달 23일까지. 문의 064)772-1600.

김인화 작가는 '환희의 수련', '연잎의 대화', '연' 등을 들고 제주를 찾았다. 그의 작품은 대상을 고스란히 재현한 듯 싶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장면이 보인다. 연과 물방울 등 서로 다른 공간의 이미지를 하나의 화면에 병치시키면서 '시각적 쾌감'을 이끈다. 이달 20일까지. 문의 064)747-1500. 진선희기자